

새로 나온 詩集

여성해방출사표

고정희 지음

7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이래, 강한 역사 의식과 사회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전4부로 구성, 1부와 2부에서는 황진이·이옥봉·신사임당·허난설헌 등 조선조 여인들의 성역업 구조에 대한 저항을, 3부에서는 현대 정치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여성들의 규제된 삶을, 4부에서는 여성해방을 주제로 한 행사와 목적지를 담고 있다. 권말에 평론가 정과리씨의 평을 함께 수록.

동광 / B6신 / 144면 / 2500원

별이 별에게

김대규 지음

최근 「사랑의 광세」로 출판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시인의 '사랑의 詩' 모음.

결혼 30주년을 맞아 시인이 체험한 사랑의 희노애락을 여러 형태로 변주한 62편의 시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관념과 감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었다"는 것이 작가의 말.

'사랑잡언' 연작시를 비롯, 사랑이 동반하는 아픔과 그 승화를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다.

영언문화사 / B6신 / 118면 / 2300원

사랑도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복희 지음

올해 무크 「90년대의 시」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작 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첫시집.

온라인, 크리넥스 티슈, 커피포트, 팩시밀리 등 독특한 시적 매개물을 통해 탄력있는 감성과 재치를 보여주는 한편 가족사에 동반된 유년체험을 그린 48편의 시를 선보이고 있는데, '시적 아포리즘'과 산문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시인의 문학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학마을 / B6신 / 88면 / 2500원

잠속에서도 나는 걷는다

朴珍淑 지음

81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첫시집 「다른 새들과 같이」를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제2시집.

"언제 어디서나 너는 무사하기를 / 이 눈물과 근심이 땅에 닿아 /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28 출판저널

튼튼하고 편안하여 / 너 사는 동안 / ... 별은 맑은 등불 같기를 / 빈다 나는 어둠 속을 가는 때에도" ('너를 위하여' 중)와 같이 화려한 수사나 계기발랄한 상상력보다는 균형과 절제라는 고전적 시학에 충실한 시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순응의 감수성'이 빚어내는 부드럽고 편안한 명상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 이남호씨의 평.

문학세계사 / B6신 / 95면 / 2400원

서초동 참새

金良植 지음

69년 「월간문학」으로 데뷔한 이래 「井邑後詞」「새들의 해돋이」「初菴詩集」 등의 시집과 일역·영역시집을 펴내는 한편 세계시인대회 대회상, 한국현대시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시인의 제5시집.

노장이나 타고르와 같이 동양정신의 안온함과 신비경을 바탕으로 따뜻한 삶, 깨끗한 인정에의 공존의식을 보여주는 64편의 시들을 '석양이 눈부시어' '서초동 참새' '나의 세시기' '크거라 나무여'의 4부로 나누어 묶었다.

문학세계사 / B6신 / 98면 / 2400원

바람타는 타조

황지형 지음

첫시집 「오투기의 기도」를 출간한 지 3년만에 펴내는 시인의 제2시집.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장애새'로서의 타조를 통해 한계상황에 갇힌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초월의 의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 60편의 시들을 수록했다.

'하늘'로 상징되는 신에 대한 믿음으로서 초월적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시인의 종교적 메시지가 전편에 흐르고 있다.

성바오로출판사 / B6신 / 96면 / 1500원

歷史의 江邊에서

鄭相九 지음

「한국정치권력 형태론」 등 20여권의 정치학 관련서적을 출간한 정치인이자 한국현대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시인의 제7시집.

중요 정치적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 3편의 서사시를 묶은 이번 시집은 한·소 정상회담, 소련 외교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즈나멘스키와의 회담, 소련연방 무임소장관 말키비키와의 회담 등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소련과의 정치

교류를 詩化하고 있는 한편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정경을 묘사한 시편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내외신문사 / B6신 / 124면 / 2000원

철마의 꿈

李炭 지음

6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면서 월탄문학상, 한국시협상, 동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중견시인의 신작시집.

詩歷 27년째를 맞는 시인의 다양한 시세계를 엿볼 수 있는 60편의 시들을 3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민중시, 참여시, 서정시를 개의치 않는" 포용력을 보여준다. 권말에 그간의 시인의 시적 변모와 에피소드를 엮은 '작가가 쓰는 작품론'을 함께 수록.

영언출판사 / B6신 / 120면 / 2300원

추억의 노래

신형식 지음

전북대 공대 교수인 시인의 데뷔시집.

고향의 풍광과 어머니에 대한 추억, 소외된 농민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인의 분노를 담은 시편들과 함께 "... 젊음의 구명난 / 가슴으로 / 꿈이 지난다 / / 회색 공중을 / 가르는 / 꿈의 진동들 / 잔설과 보리와 / 아픔과 함성들" ('사월이 되면' 중)과 같이 동학에서 5·18까지의 '아픈 현장'을 보여주는 시 63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시적 형상화에 있어 긴장감은 덜 하지만 꾸밈없고 따뜻하다는 것이 시인 김용택씨의 평.

황토 / B6신 / 132면 / 2500원

나그네 슬픈 가락

李承淳 지음

순수음악인이자 「객석」 동경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의 첫시집.

기교없는 담백한 묘사로 5, 60년대의 '전통서정'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대상의 구체성과 일상언어의 효과적 배열이 눈에 띈다.

총 56편의 시들을 '당신이 사랑을 아신다면' '밤의 교향악' '동경의 밤' '비행기에 올라 앉으면' '흐르는 것'의 5부로 나누어 묶고 권말에 평론가 유한근씨의 해설을 함께 수록.

正東 / B6신 / 138면 / 2200원

서울전선 이상없다

조성화 지음

올해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데뷔, 첫시집 「자살마위」를 내놓은 바 있는 시인의 제2시집.

'돈'과 '땅'으로 세워진 서울에서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과연 서울이 삶의 터전으로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연작시 '서울전선 이상없다' 58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시적 기교없는 메시지 중심의 담백한 진솔로 쉽게 읽힐 수 있을 듯하다.

문학마을 / B6신 / 80면 / 2500원

늑대와 뺨비꽃

박해선 지음

82년 「시문학」지를 통해 등단, 현재 방송국 PD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의 첫시집.

총 66편의 시들을 4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담은 서정시를 비롯해서 바다와 바닷고기를 통해 현재태를 풍자한 시편들을 선보이고 있다.

간결하고 절제된 언어와 현실적인 삶에 바탕을 둔 생활언어로서 터득한 세상읽기의 모습이 신선다운 패기와 신선함을 보여준다는 것이 평론가 이명재씨의 평.

문학세계사 / B6신 / 114면 / 2400원

드뷔시의 꿈

洪俊五 지음

56년 「詩旗」 동인으로 시작활동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시조를 발표해온 시인의 유렵기행시집.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감흥을 묘사한 '환상비행', 그리고 영국·네덜란드·서독·스위스·이태리·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巡歷記'가 6부로 나누어 실려 있는데, 각 나라에 대한 인상기와 함께 유명 유적지에 대한 소개가 마치 한편의 여행 안내서를 펼쳐보는 느낌을 준다.

뿌리 / B6신 / 140면 / 2500원